조선의 『재거감흥이십수(齋居感興二十首)』의 유통과 수용 양상 연구

卞 東 波*

1. 서론
2. 조선문단의 『감흥시』 수용의 사적 전개
3. 조선문단에서 『감흥시』 수용이 지니는 의미
4. 결론

1. 서론

공자를 제외하면 동아시아 문명사에서 주자(朱子, 1130-1200)만큼 동아시아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칠백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러한 영향력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주자는 위대한 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 문학사상 탁월한 문장가이기도 했다. 장단의(張端義, 1179-1248)는 『귀이집(貴耳集)』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담암(澹庵)에게는 『천현록(薦賢錄)』이 있다. 첫 장에서는 이전 세대 사람들 중 따르고 싶은 시인을 언급하면서 열다섯 명의 시인을 거론하였는데, 왕정규(王庭珪)를 으뜸으로 꼽았다. 회옹(晦翁) 역시 시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이때에는 이락지학(伊洛之學)이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을 때였다.[1]

다시 말하면 "이락지학", 즉 도학(道學)이 아직 주류가 되기 이전에, 주희는 한동안 "시인"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주희와 거의 동시대 사람인 한원길(韓元吉, 1118

* 南京大學校 域外漢籍研究所.
1) 張端義, 『貴耳集』(『宋元筆記小說大觀』 제4책,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4286면.

~1187) 역시 주희를 보고 "힘써 배우고 문장을 잘 짓는다(力學能文)[2]"고 하였다. 또한, 송대 말엽의 왕응린(王應麟, 1223-1296)은 심지어 "주희의 시는 중흥 이후 으뜸이다(翁詩爲中興冠冕)[3]"고 하였으니, 남송 시가의 최고 대표인 이 시인이 의심의 여지없이 주희를 시 역사상 높은 지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주자의 시가창작 가운데서 비교적 이취(理趣)가 있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작품인 『관서유감(觀書有感)』이나 『춘일(春日)』 등과 같은 부류를 제외하고, 사실상 필자가 관찰한 주자의 시 가운데 『재거감흥이십수(齋居感興二十首)』(이하 『감흥시(感興詩)』로 약칭한다)가 분명 영향력이 가장 큰 시이다. 이 시는 시대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국경 또한 초월하였다.

그러나 주자의 사상과 문학을 연구하는 현대의 학자들 가운데 주자의 『감흥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매우 적다.[4] 문학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는 아마도 "어록 강의를 압운해 놓은 것(語錄講義之押韻者)[5]"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시를 가지고 성리학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주자학의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이 시는 바로 주자의 학설이 집중적으로 체현된 것이며, 그의 사상의 여러 다양한 측면과도 관련되어 있다. 만약 시야를 더 넓혀 전체 동아시아 한자문화권과 동아시아의 주자학 역사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시는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중시되어왔고, 이것 역시 문학사 및 문화사상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다.

먼저, 『감흥시』는 아마도 중국 문학사상의 단편(單篇) 문학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주석이 달린 작품일 것이다. 필자의 통계에 따르면 이미 책으로 나온 중국 송원시대 주석본이 여러 종 있으며, 또한 소량의 주석본이 다른 책에 산재해 있다. 일본에 있는 에도시대 주석문헌 역시 여러 종이 있다. 한국에는 조선시대 학자가 쓴 주석본이 최소 두 종 이상 전한다. 짧은 20수의 시에 대하여 이와 같이 상세한 주석을 덧붙여 저작의 형식으로 출현한 것만 하더라도 중국 문학사상 보기 드문 현상이며, 나아가 중국, 조선, 일본에서도 집주(集注) 형식의 주석본이 여럿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감흥시』가 동아시아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설명해주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중국 송대부터 『감흥시』에 화시(和詩)를 쓰는 사람

2) 『南澗甲乙集』 권9, 「擧朱熹自代狀」(文淵閣四庫全書本).
3) 王應麟 跋, 『蘭皐集』(文淵閣四庫全書本).
4) 許總, 1999 『宋明理學與文學』, 南昌: 百花洲文藝出版社에서는 『감흥시』를 간략히 언급했을 뿐이다. 『감흥시』만을 연구한 논문은 申美子, 1999 「朱子感興詩研究」 『中國語文學論集』 11호, 韓國中國語文學研究會, 221-244면 뿐이다. 이밖에 王利民, 1999 「陳子昂的玄感和朱熹的理興: 感遇與寓居感興對讀」 『中國韻文學刊』을 참고할 수 있다.
5) 劉克莊, 『後村先生大全集』 권111, 「吳恕齋詩稿跋」(四部叢刊本).

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중국의 청대와 조선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화시가 지어져 왔다. 이러한 화시들은 『감흥시』의 "이치로 시를 짓는(以理爲詩)[6]" 풍격을 모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여기에서부터 유구한 역사를 지닌 "감흥시보계(感興詩譜系)"를 형성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삼국의 한문 문헌 가운데 이 시의 평론과 관계된 글이 계속해서 발견되는데, "독주자감흥시(讀朱子感興詩)" 혹은 "논주자감흥시(論朱子感興詩)"와 같은 제발(題跋)이 모두 그것이다. 이러한 평론들은 『감흥시』의 전체적 대의를 밝히기도 하고, 『감흥시』 가운데 구체적인 글자에 대해서 고증을 하기도 하며, 『감흥시』를 중심으로 주자학의 함의를 설명하기도 한다.

요컨대 주석, 화시, 평론은 『감흥시』가 동아시아 사회에 전파되고 수용된 세 가지 서로 다른 측면을 형성한다. 이글에서는 주석본을 중심으로 하되, 화시와 평론을 겸하여 『감흥시』의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의 영향력을 간략히 개괄해보고, 나아가 동아시아 각 사회가 『감흥시』를 수용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차이점 및 공통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조선문단의 『감흥시』 수용의 사적 전개

주자학은 일본에 유입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원나라에 갔던 고려 사신을 통하여 고려에 유입되었다. 현재 비교적 공인된 설은 안향(安珦, 1243-1306)이 가장 먼저 주자학을 한국으로 들여온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주자를 숭앙했기 때문에 주자의 호가 회암(晦庵)인 것을 따라 호를 회헌(晦軒)으로 하였다. 안향은 "내가 일찍이 중국에 있을 때 주회암의 저술을 보게 되었다. 성인의 도를 밝히고 선불의 학문을 물리쳤으니, 그 공이 공자와 짝하기에 족하다. 공자의 도를 배우고자 한다면 먼저 회암을 공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吾曾於中國, 得見朱晦庵著述. 發明聖人之道, 攘斥禪佛之學, 功足以配仲尼. 欲學仲尼之道, 莫如先學晦庵)"라고 하였다.[7] 그의 『연보(年譜)』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

6) 이러한 표현은 채모(蔡模)의 『감흥시주(感興詩注)』 발문에서 "오직 주자만이 분발하여, 천여 년 후에, 다만 시를 가지고 시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치를 가지고 시를 지었으니 『재거감흥시』가 바로 그것이다(獨朱子奮然, 千有餘載之後, 不徒以詩爲詩, 而以理爲詩, 齋居之感興是也)"라고 한 데에서 나왔다. 원문은 日本天瀑山人(林衡)編 佚存叢書本, 光緒八年(1882) 滬上黃氏 木活字排印本에서 인용.

7) 安珦, 『晦軒實記·晦軒先生年譜』 「諭諸生文」.

> 경인(庚寅) 충열왕(忠烈王) 16년 연경(燕京)에 머물면서 주자의 책을 베껴 썼고, 또한 공자와 주자의 초상을 모사하였다. 이때 주자서는 세상에 많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선생이 비로소 그것을 보게 되어서 마음이 절로 기뻤고, 그가 공자의 정맥(正脈)임을 알고서 마침내 그 책을 베끼고 또한 공자와 주자의 초상을 그려서 돌아왔다. 이로부터 주자의 책을 강구하여 박문약례(博文約禮)의 공교함에 깊이 이르렀고, 3월에 왕을 따라 원으로부터 돌아왔다.[8]

이때는 원 지정(至正) 27년(1290)이다. 원 황경(皇慶) 2년(1313)에 과거 시험을 다시 만들면서 조서를 내려 주희의 『사서집주』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도록 정하였고, 주자학은 과거시험의 정식 과목이 되었다. 따라서 안향이 주자의 책을 필사하였을 때는 원의 조정이 그것을 과거시험용 서적에 넣었던 때와 시간적 격차가 있다. 안향은 이렇게 '주자서가 세상에 많이 전파되지 않았던' 때에 주자서의 가치를 발견하였으니 그의 안목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때에 『감흥시』 역시 주자의 저서들과 함께 고려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감흥시』가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이며, 조선에서는 『감흥시』를 단독으로 번각하여 출판한 적도 있다.[9] 선조(宣祖) 때의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기재에 따르면, "건륭 무진(戊辰)년(1568)에 선군자께서 청주목(淸州牧)으로 계셨고, 나는 성근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가 이 책을 찍어서 왔다(隆慶戊辰, 先君子出牧淸州. 余往來省覲, 因印是編而來)[10]"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간행본은 아마도 채모의 주석본일 것이고, 윗글에서 '청주(淸州)'를 언급한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바로 현존하는 최초의 채모의 『감흥시주』가 청주에서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사진1 참고).[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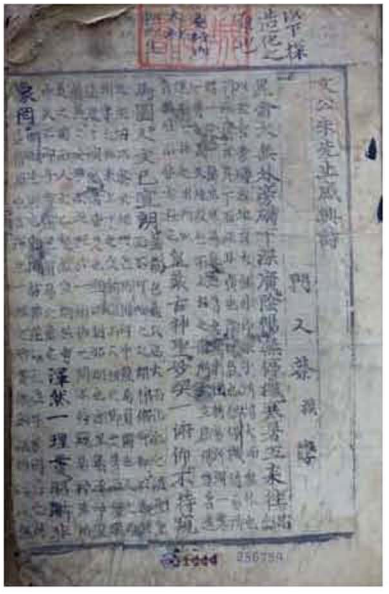
---

8) "庚寅忠烈王十六年, 留燕京, 手抄朱子書, 又摹寫孔子, 朱子眞像. 時朱子書未及盛於世, 先生始得見之, 心自篤好, 知其爲孔門正脈, 遂手錄其書, 又寫孔, 朱眞像而歸. 自是講求朱書, 深致博約之工, 三月從王還自元."

9) 『諸道冊板錄』 全羅道靈巖下에 '『感興詩』 八丈'이 수록되어 있다. 張伯偉 編, 2004 『朝鮮時代目錄叢刊』 제3책, 北京: 中華書局, 1544면. 또한 『完營冊板目錄』(1759) 靈巖下에도 역시 '『感興詩』白紙'가 수록되어 있다. 張伯偉 編, 위의 책, 1646면. 이밖에 沈慶昊, 1994 「朱子 「齋居感興詩」와 「武夷櫂歌」의 조선판본」 『서지학보』 제14호, 韓國書誌學會, 3-36면에서 『五車書錄』(1791)에도 영암(靈巖)의 책판을 수록했었다고 언급하였고, 심경호는 또한 거제각판(巨濟刻板) 『감흥시』에 5장본(五張本)과 10장본(十張本)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10) 柳成龍, 『西厓先生別集』 권4, 「書朱子感興詩卷後」(『韓國文集叢刊』 제52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0, 484면).

11) 沈慶昊, 앞의 논문, 3-36면에 이 책에 관련한 상세한 소개가 실려 있다. 필자는 다행히 규장각 선본서실(善本書室)에서 직접 이 책의 원본을 볼 수 있었다. 이 책의 봉면에는 "朱詩"라는 두 글자가 써져 있고, 끝에는 패기가 있는데, "嘉靖癸丑冬淸州牧開刊"이라고 되어 있다. 마지막 한 면에는 간각자의 이름이 있고, 또 "主宣城金氏家寶"라는 한 행의 문장이 필사되어 있는데, 이는 원래의 장서가가 쓴 것이다.



<사진 1> 嘉靖癸丑(1553) 李楨(이정)刻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이 책은 당시 청주목으로 있었던 이정(李楨, 1512~1571; 자는 강이剛而이고, 호는 귀엄龜嚴이다)이 가정(嘉靖) 계축(癸丑)년(1553)에 간행한 것이다. 이정의 발문에 따르면, 그가 사용한 저본은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의 발문이 있는 경자주자본(庚子鑄字本)이다. 이정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건의에 따라 『감흥시주』 뒤에 『의고팔수(擬古八首)』, 『봉동장경부성남이십영(奉同張敬夫城南二十詠)』, 『백장산육영(百丈山六詠)』, 『운곡이십육영(雲谷二十六詠)』, 『숙휴암중진도인(宿休庵贈陳道人)』, 『운곡잡시십이수(雲谷雜詩十二首)』, 『무이정사잡영병서(武夷精舍雜詠並序)』, 『동천(洞天)』, 『무이도가십수(武夷櫂歌十首)』(진보(陳普)의 주가 있다) 등의 시들을 덧붙였다.[12] 이 책은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채모 『감흥시주』 단행본으로, 19세기에 임형이 『일존총서』를 편찬할 때에 바로 이 책을 참고하였다.[13] 단행본

12) 퇴계는 이정(李楨)에게 편지를 써서 『감흥시주』를 간각하는 일에 관하여 논하였다. 청주목간(淸州牧刊) 『감흥시주』 뒤의 부록에 보인다. 또한 李滉, 『退溪先生文集』 권12, 「答柳仁仲」(『韓國文集叢刊』 제30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7, 331면) ; 李滉, 『退溪先生文集』 권21, 「答李剛而」(『韓國文集叢刊』, 서울: 景仁文化社, 1997, 4면) 참고.

13) "각헌(覺軒) 채씨의 주가 달린 주자의 『감흥시』 한 권을 내가 이전에 활자판 고본(古本)을 얻었는데, 이곳에서 오랫동안 전해져왔음을 알게 되었다. 후에 또한 고려본을 친구가 있는 곳에서 얻어서 그것과 비교해보았는데, 큰 이동(異同)은 없었다. ……고려본의 부록에는 주자의 시 수십 수가 있고, 끝에는 또한 구재(懼齋)가 주를 단 『무이도가(武夷櫂歌)』가 실려 있다. 지금 그 여러 시들은 빠졌고, 오직 도가(櫂歌)

이외에 조선 사인들은 아마도 『염락풍아』에 수록되어 있는 하기의 주석을 가지고 『감흥시』를 해석했던 것 같다. 임성주(1711-1788)의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권18 「서연강의(書筵講義)」에는 임성주가 조선의 세자와 나눈 대화가 실려 있다.

> 지금 『감흥시』를 보니 가히 고찰하여 알 만 하다. 세자가 말하길, "『감흥시』는 『대전』에 보이는가?"라고 하니, 대답하길, "그렇습니다. 또한 『염락풍아』에도 보이는데, 대략 주석의 설명이 있습니다. 대개 진자앙의 『감우시』를 본받았으며, 모두 스무 편으로, 그 가운데 여러 편은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 하였다.[14]

아마도 임성주는 무엇보다도 『염락풍아』의 주석이 너무 소략한 것에 유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주들을 모아서 『주문공선생재거감흥시제가주해집람(朱文公先生齋居感興詩諸家注解集覽)』을 편찬했던 것 같다. 위의 대화를 통해 임성주가 아마 청주목간본(淸州牧刊本)을 보지 못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이 책의 단행주석본을 추천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또한 그의 『집람(集覽)』에서 채모의 관점을 적게 인용했을 리가 없다. 그가 본 것은 아마도 『염락풍아』에 실려 있는 것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집람』에서 하기의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3. 조선문단에서 『감흥시』 수용이 지니는 의미

『감흥시』가 조선에서 전파된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또한 조선 사인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하였다. 조선시대의 문헌 속에서 조선의 사인들이 주자의 『감흥시』를 필사했다는 기록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 하루는 신중(愼仲)이 공첩(空帖)을 보내오면서 회암의 『재거감흥시』와 여산(廬山)의

의 주석만 남아있는데, 역시 다른 간행본이 없기 때문이다(覺軒蔡氏注朱子感興詩一卷, 余曩日獲活字版古本, 乃知其久傳於此間矣. 後又獲高麗本於友人處校之, 無甚異同……高麗本附錄朱子詩數十首, 末又載櫂齋注『武夷櫂歌』, 今刪落其數詩, 獨存櫂歌注, 亦以其無別行也)" 林衡, 『感興詩注』(佚存叢書本) 「識語」. 임형의 서술로부터 그가 본 '고려본'이 바로 청주목간본(淸州牧刊本)임을 알 수 있다.

14) 任聖周, 『鹿門先生文集』 권18, 「書筵講義」(『韓國文集叢刊』 제228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9, 362면). "今見感興詩, 可考而知也. 世子曰, 感興詩見大全乎? 對曰, 然矣, 而亦見濂洛風雅, 略有注語矣. 盖效陳子昂感遇詩, 凡二十篇, 而其中數篇說此事矣."

여러 작품들을 써달라고 하였다.[15]

남은 네 장의 종이에는 주자의 『감흥시』 한 수와 십훈범계(十訓范戒)를 썼다.[16]

선생은 일찍이 어유봉(魚有鳳)을 위하여 주자의 『감흥시』를 써주었다.[17]

지금 죽천(竹泉)의 외손 이명덕(李命德)이 한 장(障)을 보여주었는데, 즉 달보(達甫; 蔡達周)가 쓴 주자의 『감흥시』와 양숙(養叔; 愼希復)의 제발이었다.[18]

퇴계 선생은 주자의 『감흥시』를 베껴 써서 문하 사람 김지산(金芝山)에게 주었다.[19]

『선훈경수첩(先訓敬守帖) 일(一)』은 선조 분봉공(盆峰公)의 유훈 48조로, 그것을 써서 경계함으로써 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경수첩(敬守帖) 이(二)』는 주자의 『감흥시』 20수를 썼다.[20]

명고(明皐; 徐瀅修)가 부사(副使)에 제수 받던 날에 선왕께서 수찰을 내려주시고, 나에게 주자의 『감흥시』를 임금의 부채에 써서 바치도록 명하였다.[21]

서예는 결코 단순한 선(線)의 예술이 아니다. 붓글씨로 쓴 내용은 사실상 쓴 사람의 정서와 지향의 반영이며, 또한 가장 표현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감흥시』는 운문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명구가 매우 많으며, 따라서 조선의 사인들은 그것을 빌려 자신이 사회와 인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심지어 임금까지도 『감흥시』의 시구를 써서 사람들에게 증여하기를 좋아하였다. "임금께서 직접 주자의 『감흥시』의 '구슬이 연못에 감춰져 절로 아름다우

15) 李滉, 『退溪先生文集』 권43, 「書晦庵詩帖後」(『韓國文集叢刊』 제30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7, 458면). "一日, 愼仲見寄以空帖, 要書晦庵齋居感興詩及廬山諸作."

16) 尹拯, 『明齋先生遺稿』 권18, 「答李景甫」(『韓國文集叢刊』 제135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6, 413면). "所留四丈紙, 寫朱子感興詩一首及十訓范戒."

17) 朴光一, 『遜齋先生文集』 권1(『韓國文集叢刊』 제113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6, 213면). "先生嘗爲有鳳手書朱子感興詩."

18) 鄭澔, 『丈巖先生集』 권25, 「題金達甫手蹟後」(『韓國文集叢刊』 제157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7, 560면). "今竹泉外孫李命德, 持示一障, 卽達甫所書朱夫子感興詩而養叔題跋者也."

19) 趙德鄰, 『玉川先生文集』 권8, 「書金衛卿兌胄家藏退溪先生手筆三帖後」(『韓國文集叢刊』 제175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6, 267면). "退溪老先生手書朱子感興詩與門人芝山金公."

20) 李萬敷, 『息山先生文集』 권18 「敬書王考筆帖匣」(『韓國文集叢刊』 제178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6, 396면). "遺訓四十八條, 書以戒之, 使遵守者. 又敬守帖二, 書朱先生 『感興詩』 二十首."

21) 金祖淳, 『楓皐集』 권2, 「題徐明皐瀅修朱書采訪緣起」(『韓國文集叢刊』 제289책, 서울: 景仁文化社, 2002, 34면). "明皐除副使日, 先王下手札, 命賤臣書朱子 『感興詩』 於御扇以進."

며, 옥이 산에 묻혀 광휘를 품고 있도다'라는 구를 써서 내려주셨다(上親書朱子感興詩珠藏澤自媚玉蘊山含輝一句以下)".[22] 『감흥시』가 사인들이 필사하기 좋아하였던 대상이었다는 사실로부터 그것이 매우 큰 교육효과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시구들은 마치 인생의 격언과 유사하며 풍부한 철학적 함의를 담고 있다.

이상의 예에서 전체 20수를 모두 베껴 쓴 것 외에도 일반적으로 필사자들은 다만 한 수 혹은 일련의 시를 베껴 쓰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20수의 시 가운데서 어느 수의 시, 혹은 어떤 구가 가장 환영받았을까? 방금 제시한 "구슬이 연못에 감춰져 절로 아름다우며, 옥이 산에 묻혀 광휘를 품고 있도다"라는 구 이외에, 조선의 사인들이 가장 좋아한 것은 제9수의 "가을 달이 찬 물을 비추네(秋月照寒水)"라는 구로서 많은 사인들이 이 시구를 가지고 자신의 서재에 이름을 붙였다.

> (우암尤庵 선생은) 선생의 거처에 이름을 붙여 '수(遂)'라 하였으니, 설문청(薛文淸; 薛瑄)의 말을 취한 것이다. 또한 그곳을 '한수재(寒水齋)'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주자의 『감흥시』에 나오는 시어를 사용한 것이다.[23]

> 백성들의 힘을 쓰지 않고서 관아를 지었는데, 이름 하여 추월헌(秋月軒)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자의 『감흥시』의 시어를 취한 것이다.[24]

> (우리 고을의 부용당(芙蓉堂; 成安儀) 선생은) 과거 시험에는 뜻이 없고, 연봉(蓮峰) 아래 이수(伊水) 가에 거처를 짓고서 그 서재를 이름 하여 추월(秋月)이라 하였는데, 이는 주자의 『감흥시』의 시어를 취한 것이다.[25]

이뿐만이 아니라, 『감흥시』는 조선의 사인들의 일상적인 독서 대상이었으며, 아마도 가장 사랑 받았던 독서 대상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다.

> 주역의 도는 끝없이 우(耦)와 기(奇)가 반복되어 순환하니, 성인이 베푼 가르침을

22) 柳疇睦, 『溪堂先生文集』 권15, 「朝奉大夫行世子侍講院諮議主一齋先生柳公行狀」(『韓國文集叢刊』 제313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9, 514면).

23) 李宜顯, 『陶谷集』 권12, 「左議政寒水齋權先生神道碑銘幷序」(『韓國文集叢刊』 제181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7, 69면). "(尤庵)題先生居室曰遂, 取薛文淸語也. 又命之曰寒水齋, 蓋用朱子感興詩語."

24) 趙任道, 『澗松先生文集』 권5, 「迂拙子朴先生誾表碑銘幷序」(『韓國文集叢刊』 제89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6, 109면). "不煩民力構廳館, 名曰秋月軒, 蓋取朱子感興詩中語也."

25) 曹兢燮, 『巖棲先生文集』 33권, 「秋月軒孫公墓表」(『韓國文集叢刊』 제350책, 서울: 景仁文化社, 2005, 499면). "(吾鄕成芙蓉堂先生)無意擧業, 築室於蓮峰之下伊水上, 題其軒曰秋月, 蓋取朱子感興詩語."

누가 헤아릴 수 있으리. 향을 사르고 매화꽃 핀 창가에 고요히 앉아 주문공의 『감흥시』를 읽는다.[26]

야심하여 인적이 고요한데 종소리 들려 시간이 늦었음을 깨닫고, 고요히 등불 아래에서 밤이 깊어갈 제. 공명 찾는 길에서 상책은 오직 떠나는 것인데, 밤경치 속의 속마음을 누구에게 말하리. 뜰의 눈이 바람을 따라 흩날리기 시작하고, 처마의 고드름은 달빛을 받아 들쭉날쭉해졌네. 절개 지켜 안식함은 나의 일, 궤안에 기대어 한가로이 『감흥시』를 읽네.[27]

죽기 전에는 마땅히 나라를 걱정해야 하나, 재주가 없는데 세상을 어찌 구하겠는가? 영예로운 이름 얻고 싶은 마음이 없고, 업적을 이루려는 뜻은 완전히 쇠하였네. 매번 『수초부(遂初賦)』를 기억하며, 애오라지 『감흥시』를 읊는다. 나는 행적이 이미 정해져 있나니, 벼슬길을 천거해주는 이가 없구나.[28]

수재(秀才)인 의춘(宜春) 남운거(南雲擧)는 성품이 아름다우며 학문을 좋아하였다. 지난 달 초에 진양(晉陽)에서 와서, 희양(晞陽) 섬호(蟾湖) 가에서 구속되어 있는 누인(纍人)을 방문하여……십여 일 동안 머물렀다. 그저 『대학』과 주자의 『감흥시』만 읽었다.[29]

남당(南塘)의 『숙야잠(夙夜箴)』, 회옹의 『감흥시』를 낭송하는 것을 일상으로 하였다.[30]

"향을 피우고 고요히 앉아서(焚香靜坐)"든, 혹은 "궤안에 기대어 한가히 보는(隱几閑看)" 것이든 『감흥시』는 조선 사인들의 일상적인 독서에서 유가 경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읽힌 저작일 것이다. 또한 "일상으로 삼는(日以爲常)" 정도에 이르

26) 李種學, 『麟齋遺稿·南行錄』(『韓國文集叢刊』 제7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0, 507면). "易道無窮耦與奇, 聖人垂教孰能思. 焚香靜坐梅窗下, 且讀文公感興詩."

27) 朴長遠, 『久堂先生集』 권3, 「遣懷」(『韓國文集叢刊』 제121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3, 63면). "人定鍾聲政覺遲, 寂寥燈下夜長時. 名途上策唯宜去, 暮景中懷欲告誰. 庭雪從風初錯落, 簷冰受月轉參差. 操持宴息吾家事, 隱几閑看感興詩."

28) 趙錫胤, 『棲靜先生文集』 권2, 「次曹守而漢英韻」(『韓國文集叢刊』 제105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3, 289면). "未死宜憂國, 無才敢濟時. 榮名心不在, 事業志全衰. 每憶遂初賦, 聊吟感興詩. 行藏吾已定, 雲路莫相推."

29) 金聖鐸, 『霽山先生文集』 권2, 「贈別南生雲擧國鵬幷序」(『韓國文集叢刊』 제206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8, 238면). "宜春南秀才雲擧, 質美而嗜學. 前月初, 自晉陽, 訪纍人於晞陽蟾湖之上……留十數日. 僅讀大學及朱子感興詩."

30) 奇宇萬, 『松沙先生文集』 권36, 「松坡魏公墓碣銘幷序」(『韓國文集叢刊』 제346책, 서울: 景仁文化社, 2005, 257면). "誦南塘夙夜箴, 晦翁感興詩, 日以爲常."

렀고, 심지어 "유일하게 읽는(僅讀)" 독서대상이 되었다. 『감흥시』의 이러한 보급 정도는 동시대의 중국과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선의 사인들은 『감흥시』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뜻을 고찰하고 그것의 출전을 찾을 수 있었으니, 그들이 이 책에 대해 열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익현(崔益鉉)은 "어제 『감흥시』를 함께 읽었는데, 의심이 되는 곳은 다른 책을 참고하고, 출처를 고증하여 자유롭게 기록하였다(昨日共讀感興詩, 疑處更檢看, 隨考出處謾錄去.)[31]"라고 한 뒤 이 글 아래에 시에 나온 약간의 어휘들에 대한 고증과 해석을 하였다. 또한, 조선의 사인들은 평소에 늘 송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병상에 있더라도 역시 그것을 읽는 것을 잊지 않았다. "공이 병으로 누워계실 때, 늘 낙민잠명(洛閩箴銘)과 『감흥시』를 암송하였다. 고인들이 '숨이 아직 붙어있는 한, 이 뜻을 조금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에 거의 가깝도다(公病枕, 常誦洛閩箴銘與感興詩. 古人所謂一息尙存, 此志不容小懈者, 殆近之矣.)[32]" 이러한 기록들로부터 『감흥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덕적 힘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힘은 종종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었다. "초야에서 본성을 기르니, 즐거워 우환을 잊는다. 바람 불고 맑은 달이 뜬 밤이면, 주자의 『감흥시』, 『무이구곡』, 『초은조(招隱操)』를 낭랑하게 읊으니, 소리가 매우 비장하여 천년의 감회가 조우하는 듯하다(養性林泉, 樂而忘憂. 每風淸月夜, 朗吟朱子感興詩, 武夷九曲, 招隱操, 聲甚悲壯, 若千載感遇焉.)[33]" "소리가 매우 비장하다"는 데에서 조선의 사인들은 이 시에 대하여 일종의 마음의 공명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힘을 얻은 것은 주자가 시를 쓸 당시에 지니고 있었던 강렬한 문화의식과 상관이 있으며, 또한 주자가 당시에 '임거자(林居子)', 즉 재야에서 뜻을 얻지 못한 사인임을 자처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주자는 생전에 정치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고, 특히 만년에는 한탁주(韓侂胄)의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바 있었기에, 그는 일개의 한사(寒士)의 신분에서 연작시의 형식으로 역사와 현실에 대한 사고와 비판을 드러내면서 이로써 사회를 개조하겠다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조선 사인들은 특히 그 가운데의 힘을 전해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하여 이 '철학시'는 일종의 생명력을 충만히 얻게 되었다. "(그 사람됨은) 편안히 고요하고 말이 없었는데, 간혹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하면 격앙하여 감개하였다. 때로는 굴원의 『이소』와 제

31) 崔益鉉, 『息山先生文集』 권7, 「與吳致重」(『韓國文集叢刊』 제178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6, 191면).
32) 崔益鉉, 『勉庵先生文集』 권28, 「楸軒姜公墓碣銘幷序」(『韓國文集叢刊』 제326책, 서울: 景仁文化社, 2004, 100면).
33) 崔益鉉, 『勉庵先生文集』 권29, 「壺山魏公墓碣銘幷序」(『韓國文集叢刊』 제326책, 서울: 景仁文化社, 2004, 115면) ; 『松沙先生文集』 권47, 「壺山魏公行狀」(『韓國文集叢刊』 제346책, 서울: 景仁文化社, 2005, 529면).

갈량의 『출사표』 및 주자의 『감흥시』 등의 문장을 읊어서 그 울분을 토로하였다((其人)恬靜簡默, 而或値酒酩酊, 激昂慷慨. 有時乎誦屈騷葛表及朱子感興詩等篇, 以敍其幽鬱.)[34]" 『이소』는 굴원이 일생 동안 뜻을 얻지 못하여 울분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반영한 것이고,[35] 『출사표』 역시 제갈공명의 인생의 뜻과 강개함을 표현한 비가이다.[36] 『감흥시』를 굴원의 『이소』와 제갈량의 『출사표』에 비견한 것을 보면, 조선의 사인들이 주자 역시 일생 동안 웅장한 뜻을 실현시키지 못했으며 그 정서를 『감흥시』에 기탁한 것이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사인들의 일상적인 강학에서도 종종 『감흥시』에 대해 토론하였다. 교육과 강론을 통하여 『감흥시』의 '풍교(風敎)' 가치관은 매우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으며, 이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 9일 을묘(乙卯)일에 비가 조금 왔다. 처가의 박언장(朴彦章)과 이원영(李元英)이 술을 가지고 와서 송별하였고, 박문중(朴文仲)과 정회(鄭澮)도 와서 송별하였다. 둔령(芚嶺)을 넘어 원암역(元巖驛)에서 묵었고, 제대로 된 집에서 머물며 숙수(菽水) 공양을 보게 하였다. 전제(典弟)와 완기자(完基子)는 멀리 적소로 따라왔다. 주광문(周廣文)과 주헌민(周獻民) 어진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흰 신발과 종이를 보내왔다. 경룡(景龍) 박운길(朴雲吉)과 충룡(沖龍) 박운거(朴雲擧)가 술을 가지고 와서 전별하였고, 또한 각각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베풀어서 관동(冠童)과 종자를 먹였다. 박천수(朴天授)가 술을 들고 와서 전별하였는데, 김절부의 시부이다. 신철(辛澈)과 경함(景涵, 李潑)이 또한 시종을 보냈는데, 또한 각각 노자를 가지고 왔다. 함께 『감흥시』한 편을 읽었다.[37]
>
> 제생들에게 『감흥시』를 강학하였다.[38]

---

34) 宋秉璿, 『淵齋先生文集』 권38, 「外祖肅齋李公墓誌」(『韓國文集叢刊』 제330책, 서울: 景仁文化社, 2004, 224면).

35) 『사기·굴원열전(史記·屈原列傳)』에서 사마천이 말하길, "'이소'라는 것은, 근심과 이별하는 것이다(離騷者猶離憂也)"라고 하였다. 또한, 『초사보주(楚辭補注)』 1권에 인용된 「이소찬서(離騷贊序)」에서 반고가 말하길, "'이(離)'는 만난다는 것과 같다. '소(騷)'는 근심이다. 자신이 근심과 만나 시를 지음을 밝힌 것이다(離猶遭也, 騷憂也, 明己遭憂作辭也)"라고 하였다.

36) 송대 조여시(趙與時)는 『빈퇴록(賓退錄)』 9권에서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분명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이다(讀諸葛孔明出師表而不墮淚者, 其人必不忠)"라고 하였다(『宋元筆記小說大觀』 제4책, 4233면).

37) 趙憲, 『重峯先生文集』 권13, 「北謫日記」(『韓國文集叢刊』 제54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6, 419면). "初九日乙卯, 小雨. 姻家朴彦章及李元英持酒來別, 朴文仲, 鄭澮來別. 踰芚嶺而宿元巖驛, 留完堵俾看菽水之養. 典弟及完基子遠從於謫所. 周廣文獻民賢仲以書送白鞋及紙. 朴景龍雲吉, 沖龍雲擧以酒來餞, 又各設食於朝夕, 以饋冠童及從者. 朴天授持酒來別, 乃金節婦翁也. 辛澈景涵又饋從人, 又各有賮. 俱講感興詩一篇."

38) 宋明欽, 『櫟泉先生文集』 권19, 「年譜」(『韓國文集叢刊』 제221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9, 381면). "與諸生講感興詩."

> 14년 무오(戊午)년 가을 나는 탐라(耽羅)로부터 과거시험에서 은혜를 입어 광양현(光陽縣)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다음해 5월을 넘겨, 조카인 강한(江漢)이 나에게 문안하기 위하여 산 넘고 강 건너 6백리를 왔다. 그리고 이곳에 50여 일간 머물렀는데, 그동안 『대학』, 『중용』, 『주자행장』, 『서명』, 『감흥시』 등의 문장을 강학하였다.[39]

일상생활 가운데서, 혹은 여행길 도중에, 혹은 평적 생활 중에서도 조선의 사인들은 『감흥시』를 강습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감흥시』에 대한 열정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또한 『감흥시』를 『대학』, 『중용』, 『서명』 등의 경전과 함께 강습하였으니, 이는 바로 한 편의 문학작품인 『감흥시』를 그대로 성리학 경전의 지위에 두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며, 동시에 『감흥시』의 심원한 철학적 함의를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두 편의 『감흥시』에 대한 집주의 성격을 띤 저작물이 나왔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임성주가 편찬한 『주문공선생재거감흥시시가주해집람(朱文公先生齋居感興詩詩家注解集覽)』(아래에서는 『집람(集覽)』으로 약칭한다. 사진2 참고)이다. 임성주의 자는 중사(仲思)이고 호는 녹문(鹿門)이다. 『집람』은 한국의 각 대학 도서관에 모두 소장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모두 소장되어 있다. 필자가 본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40] 책 앞에는 범례, 목록(인용한 제가들의 성명을 열거하였다)이 있고, 끝에는 『감흥시』 제가총론이 덧붙여져 있으며, 뒤에는 임성주와 민우수(閔遇洙)의 발문이 있다. 임성주는 주자학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하였고, 『감흥시』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였다.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의 부록에는 임정주(任靖周)가 쓴 「행장」이 있다.

> 평소에 주자의 저서에 가장 깊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찍이 『감흥시』 20수는 진실로 학자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학문에 나아감에 있어서의 요체라고 여겼는데, 제가들의 주해가 묘망하고 요지를 잃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마침내 여러 의견들을 절충하고 또한 사이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집람』이라 이름 붙였다.[41]

---

39) 金聖鐸, 『霽山先生文集』 권13, 「贈再從姪江漢序」(『韓國文集叢刊』 제206책, 서울: 景仁文化社, 2000, 446면). "上之十四年戊午秋, 余自耽羅, 蒙恩擢棘, 移配於光陽縣. 越明年五月, 族子江漢爲問余, 跋涉六百里而來. 仍留處五十餘日, 其間講大學, 中庸, 朱子行狀, 西銘, 感興詩諸篇."

40) 1冊, 芸閣印書體, 左右雙邊, 上白魚尾, 版框: 21.3×13.7cm, 10行20字, 注釋小字雙行, 판심에 '감흥시(感興詩)'라고 적혀있고, 표제는 '주문공감흥시집(朱文公感興詩集)'이다.

41) 任靖周, 『鹿門先生文集』 附錄, 「行狀」(『韓國文集叢刊』 제228책, 서울: 景仁文化社, 2001, 558면). "平生於

朱文公先生齋居感興詩諸家註解集覽
余讀陳子昂感寓詩愛其詞旨幽邃音節豪宕非當
世詞人所及如丹砂空青金膏水碧雖近乏世用而
實物外難得自然之奇寶寓唐書及遜詩作遇今從之邃一作遠宕與蕩通砂一作沙非是
通子昂字伯玉唐中宗時人爲感遇詩三十八首
感遇者感於所遇也丹砂生符陵山谷空青生益
州山谷及越巂山有銅處銅精熏則生其腹中空
色青大者如雞子內有漿金膏穆天子傳河伯示
汝黃金之膏水碧山海經耿山多水碧韓詩註水
感興詩 五

<사진 2> 任聖周 『朱文公先生齋居感興詩諸家注解集覽』,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이 글은 『감흥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집람』의 편찬 역시 현존하는 여러 주석들이 "묘망하고 요지를 잃은 것", 즉 잡되고 중심이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위에서 '절충'을 가하였음을 이야기하였다. 이 책의 편찬 체례에 대해서는 임성주 본인이 발문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 친구 홍군계(洪君季)가 명대 유학자 류섬(劉剡)이 호운봉(胡雲峰), 류상우(劉上虞) 두 사람의 주석을 모아서 편찬한 책을 그의 족부인 홍경중(洪敬仲)으로부터 얻어서 나에게 보여주면서 말하길, "고치고 모아서 책을 만들어보라(盍爲之修輯以成書)"고 하였다. 나는 그것을 받아서 읽어보았는데, 글자에는 그 뜻이 달려있고 구에는 그 풀이가 달려있었다. 무릇 예전에 망연하여 알지 못했던 것들이 명료하게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있는데도 여전히 미혹한 상태에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참으

朱書用力最深.嘗以感興詩二十篇實爲學者治心進學之要而諸家注解多汗漫失旨遂爲之折衷而間附己意名以集覽."

> 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 설도 간혹 번잡하고 자질구레한 부분이 많이 있고, 편집 역시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그 사이에 빠지거나 소략한 곳이 있기에, 마침내 내가 그중에 겹치는 것은 빼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대충 조리 있는 순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김인산(金仁山)의 『염락풍아주(濂洛風雅注)』와 우암선생(尤庵先生, 宋時烈)의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를 취하여 단락마다 첨가하여, 통틀어 한 편을 만들었다. 만약 간혹 미비한 곳이 있으면, 율곡선생의 『소학집주』의 예에 근거하여 칸을 더하여서 보충하여 덧붙였다. 그러나 한 두 개의 문장의 뜻에 불과하다. 이에 당대의 학식이 있는 분들의 가르침을 받들고, 당대의 문우들과 두루 토론하였으며, 일찍이 감히 자신의 의견으로 망령되이 한 글자라도 덧붙여서 참월의 죄를 범한 적은 없다. 책이 완성되자 '집람(集覽)'이라 이름 붙였다.[42]

윗글로부터 임성주가 편찬한 것의 기초는 호병문의 『감흥시통』과 유리의 『선시보주』 두 책이며, 이러한 기초위에 또한 김이상의 『염락풍아』 비주와 조선 송시열(宋時烈)의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의 내용을 첨가하였다. 즉, 『감흥시통』에 인용된 11명의 주석, 『염락풍아』에 인용된 2명의 주석, 『주자대전차의』에 인용된 1명의 주석에 『선시보주』를 더하여 모두 15명의 주석을 수록한 셈이니 대관(大觀)이라 할 만 하다. 이 주석본들 가운데 임성주는 『감흥시통』에서 자료를 가장 많이 취하였지만, 역시 완전히 그 뜻을 따르지는 않은 부분도 있는데, 『감흥시』의 분단(分段) 방식에 있어서는 『감흥시통』을 따르지 않았다. 즉, 『감흥시통』은 제1수에서 제4수까지를 한 절(節)로 보았는데, 『집람』에서는 제1수부터 제3수까지를 하나의 절로 보았다. 이는 두 사람이 전체 시의 주제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이 달랐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만약 제가의 설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임성주는 본인의 생각을 첨가하였는데, 이 경우 동그라미를 더하여 표시하였다.

애초에 호병문이 『감흥시통』을 완선한 후에 줄곧 휘주(徽州) 지역에서만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그 상세함을 볼 기회가 없었고, 따라서 유리가 『선시보주』를 지을 때에도 역시 이 책을 참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탄하면서 "내가 듣기로 운봉 호병문이 역시 일찍이 『감흥시통』을 지었다고 하는데, 혹자가 그 책을 비밀히 간직하여 전해지지 않는다. 만일 이 책을 구하여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

---

42) "友人洪君季得明儒劉剡所編胡雲峰, 劉上虞二氏注於其族父敬仲氏以示余, 曰, 盍爲之修輯以成書. 余受而閱之, 字有其訓, 句有其解. 凡昔之茫然而不識者, 莫不瞭然而悉備. 有是而尙沉沒不行, 誠可惜也. 然其說或多繁碎, 編錄又復雜亂, 間亦有闕略處, 遂就其中刪複正誤, 略成次第. 而又取金仁山濂洛風雅注及尤庵先生朱子大全箚疑, 逐段添入, 通爲一編. 其或有未備者, 則又依倣栗谷先生小學集注例, 加圈而附補之. 然不過一二文義而已. 於是而復奉稟於當世先達, 博議於一時士友, 未嘗敢輒用己意妄下一字, 以犯僭踰之罪也. 編旣成, 名以集覽."

칠 수 있다면 또한 다행이겠다(竊聞雲峰胡先生亦嘗著感興詩通, 或者秘其稿而不傳, 萬一獲見是書, 得以正予之謬妄, 則又幸矣)"고 하였던 것이다.[43] 또한 호병문이 계승한 것은 채모의 학설이기 때문에, 채모의 학설에 의문을 제시한 황간과 하기 두 사람의 주해는 수록하지 않았다. 비록 『감흥시통』이 중국에서 규모가 비교적 큰, 집주 성질을 띠는 저작이기는 하지만, 널리 전해지지 못했던 사실과 이념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이 책은 많은 관점을 모두 모아놓은, 진정한 집대성 형식의 저작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결함이 임성주가 『집람』을 쓸 때 자신이 부분적으로 보충을 해 넣었던 이유이다. 임성주는 「발(跋)」에서 "편집하는 일에서부터 버리고 취하고 고치고 삭제하는 일까지, 시종 경중(敬仲)과 함께 상의하여 수정하였고, 보충한 내용 같은 경우는 또한 대부분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蓋自編輯之役, 以至去取修刪, 終始與敬仲氏同其商訂, 而若其附補者, 又多出其手)"라고 하였는데, 이 책의 완성에는 그의 친구 홍경중(洪敬仲)의 도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완성한 후에 아마도 임성주는 친구들에게 그 책을 보내어 토론을 하였던 것 같다. 그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감흥시집람』은 엉성하게 집록한 것이라, 생각건대 빠지고 잘못된 부분이 많을 테니, 가르침과 질정을 얻어 들을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일 것이네(感興詩集覽, 草草輯錄, 想多疏繆, 承蒙箴敎, 欣幸無已)"라 하였다.[44] 임성주가 이 책을 편찬할 때의 태도가 매우 진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지한 태도는 주로 두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감흥시』의 어전(語典)에 대한 상세한 고증이고, 또 하나는 널리 공부하되 의심 가는 곳은 비워두는 학문태도이다. 비록 중국 주석가들이 『감흥시』에 대하여 이미 매우 상세한 주석 작업을 했지만 어떤 어휘들은 중국의 사인들은 평상시에 쓰는 어휘라고 여기지만, 외국의 사인들에게는 열람할 때에 여전히 일정한 장애가 되었고, 이에 임성주의 『집람』은 중국의 주석가들의 기초 위에서 진일보한 탐구를 하였다. 예를 들어, 제1수의 "추위와 더위가 서로 오고 가네(寒暑互來往)"라는 구절을 해석할 때에 임성주는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며,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온다는 것은 『역·계사전』에서 나온 말이다(寒往暑來, 暑往寒來, 出易系辭傳)"라고 밝혔고, 같은 수의 "우리를 위해 거듭 손바닥을 가리키듯이 방향을 제시했지(爲我重指掌)"에 대해서 임성주는 "'손바닥을 가리킨다(指掌)'는 것은 『논어』에서 나온 말이다(指掌出論語)"라고 하

43) 청대의 학자들도 이 책을 보지 못하였고, 이 책이 일실되었다고 여겼다. "주자시에 『재거감흥』 5언시 20수가 있는데, …… 그 후에 운봉(雲峰)이 열 사람의 주석을 채록하여 『감흥시통』이라 제목을 붙였다.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朱子詩有齋居感興五古二十章, ……其後故雲峰采十家之注, 名曰感興詩通, 今不傳)." 查愼行, 『得樹樓雜鈔』 권2(民國適園叢書本).

44) 任聖周, 『鹿門先生文集』 권2, 「與櫟泉宋兄」(『韓國文集叢刊』 제228책, 서울: 景仁文化社, 2001, 40면).

였다. 이러한 어휘들은 중국의 주석가들에게는 상식처럼 여겨져서 꼭 주를 달 필요가 없지만, 임성주는 일일이 원래의 출처를 밝혔다. 또한, 그는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워두었다. 예를 들어, 제4수에 대해 『집람』에서 "반씨는 이것은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된 사람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고, 채씨는 이것을 빌려 사람의 마음이 방탕하게 치달려 멈출 줄 모르면 마음이 주인을 잃고 물욕이 거꾸로 주인이 됨을 비유한 것으로, 이것은 육의 가운데 비의 수법을 쓴 것이라고 하였다. 내 생각에 반씨와 채씨의 두 가지 설은 모두 상통하는데,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르겠다(潘氏曰, 此言心爲形役之人. 蔡氏曰, 借此以喩人心之馳騖流蕩, 若不知止, 則心失主宰, 而物欲反據而爲之主矣. 此六義之比也. 按, 潘蔡二說, 皆通, 未詳孰是)"고 하였다. 제12수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여운을 정리하다(興言理餘韻)"라는 구를 설명하면서 임성주는 "'여운을 정리하다(理餘韻)'에 대해서 하씨와 호씨의 두 설은 서로 다른데, 독자들이 상세히 판단하기 바란다(理餘韻, 何胡二說不同, 讀者詳之)"고 하였다. 사람들에게 억지로 해설하기보다는 독자들 자신이 판단하기를 기다리는 편이 나으니, 이것은 임성주의 학문적 근엄함이 드러난 것이다.

비록 임성주가 "일찍이 감히 자신의 의견으로 망령되이 한 글자라도 덧붙인 적이 없다(未嘗敢輒用己意妄下一字)"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제가들의 주해를 '절충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임성주 본인의 의견은 이 책에 모두 드러난다. 책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가 주자학 가운데 북산학파, 즉 하기 일파의 해석에 대해 비교적 찬성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시에 하기의 관점을 인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1수의 주제에 대해서는 하기와 채모의 관점이 크게 갈린다. 임성주는 채모가 "그런데 이편이 만약 억지로 태극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한 장의 말의 맥락이 모두 관통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이 묘망하면, 결국 이치를 말할 때에 있어서의 큰 병폐가 된다(但此篇若強據作太極說, 則一章語脈, 皆貫穿不來. 此等言語滉瀁, 最說理之大病也)"고 한 것에 대해서 하기가 비평한 내용의 전문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주자대전차의』에 나오는 웅강대(熊剛大)의 관점, 즉 "이 편은 천지 음양 한서의 운행의 기를 논하고 있다(此篇論天地陰陽寒暑運行之氣)"고 한 것을 덧붙여서 하기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채모의 설은 한 글자도 인용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임성주 본인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임성주는 조선시대의 저명한 성리학자로서, 그의 개인적인 철학 관점도 『감흥시』를 해석할 때에 드러난다. 예를 들어, 제2수의 "그 가운데 지극한 이치가 있나니, 만세 동안 지금과 같으리(至理諒斯存, 萬世與今同)"에 대하여 그는 "이것은 음양의

조화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지극한 이치가 존재하는 바이다. 만세 동안 지금과 같다는 것은 음양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此謂陰陽之化, 無始無終, 無古無今, 是乃至理之所存也. 萬世與今同, 當屬陰陽看)"고 하였다. 그는 하기와 웅강대 등의 관점을 계승하여 『감흥시』의 제1수와 제2수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음양의 운동과 변화라고 여겼다. 그런데 김평묵(金平默, 1819-1888)의 『강상산록(江上散錄)』(辛亥)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감흥시』에서 "만세 동안 지금과 같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집람』에서는 "음양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 역시 마땅히 '이(理)'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에서는 음양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주제와 골자는 바로 '이'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기(氣)'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45]

이 글에서는 성리학에서의 이기(理氣)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임성주는 소위 '이기선후(理氣先後)'에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이와 기가 불가분의 것이라고 여겼다. 기는 일종의 아직 분화되지 않은 원시적 혼돈의 상태이며, 기의 변화가 음양을 만들어내고, 이는 음양의 변화 가운데, 즉 기의 가운데에 존재하므로 양자는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김평묵은 이와 기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그는 이 시에서 말하는 것이 이(理)이지 기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의 철학 상의 입장 차이를 잘 보여준다.

또 다른 집주본은 이종수(李宗洙, 1722~1797)의 『주자감흥시제가집해(朱子感興詩諸家集解)』(이하 『집해(集解)』로 약칭함. 사진3 참고)이다. 이 책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미국 하버드대학 옌칭도서관 등에 모두 소장되어 있으며, 필자가 본 것은 하버드옌칭도서관 소장본이다.[46] 책 앞에는 범례가 있고, 끝에 이병원(李秉遠), 김도화(金道和)의 발문이 있다.

---

45) 金平默, 『重庵先生文集』 39권, 「江上散錄」(『韓國文集叢刊』 제320책, 서울: 景仁文化社, 2003, 98면).
46) 1冊, 左右四周雙邊, 內向2葉花紋魚尾, 版框21.0 ×16.5cm, 有界, 每半頁10行20字, 注釋小字雙行, 판심에 '감흥시집해(感興詩集解)'라고 되어 있다.

朱子感興詩諸家集解
朱子自叙曰予讀陳子昂感遇詩補註子昂字伯玉梓州射洪人
文藝傳唐興承徐庾流風子昂始變正雅爲感遇三十八首王適云子昂感遇詩爲海內文宗誠知
言也愛其詞旨幽邃音節豪宕非當世詞人所及如
丹砂空青金膏水碧補註丹砂出桂州句漏縣晉葛洪欲得丹砂求爲句漏令
空青生益州山谷及越嶲山有銅處銅精熏則生其腹中空金膏穆天子傳示汝黃金之膏水碧山
海經耿山多水碧郭璞曰碧亦玉也選方士煉玉液陵波采水碧四者皆仙藥也雖近乏
世用而實物外難得自然之奇寶欲效其體作數
十篇顧以思致平凡筆力萎弱竟不能就然亦恨
其不精於理而自託於仙佛之間以爲高也齋居

<사진 3> 李宗洙 『朱子感興詩諸家集解』, 하버드 옌칭도서관 소장

『집해』는 범례에서 "기타 제가들의 설은 다만 『선시속편』에 실려 있는 것만을 들어 채록하였기 때문에 채씨의 주석 위주로 되어 있다(其它諸家說祇據選詩續編所載者采輯, 故以蔡注爲主)"고 하였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모아놓은 제가들의 주석은 모두 15명의 것으로 주로 『감흥시통』, 『선시보주』, 『염락풍아』를 병합하여 이루어졌다. 다만 『감흥시통』에 실려 있는 10명 중의 한 사람인 진덕수의 주석은 빼버렸으며, 또한 웅강대의 설도 수록하지 않았고, 범례에서는 열거하지 않았던 김이상의 설을 인용하였다. 이밖에도, 『집해』에서는 『주자어류』와 『주자대전(朱子大全)』 등 주자 본인의 글을 여러 차례 인용하여 증거를 들었다. 『집해』는 기본적으로 제가들의 설을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원래의 자료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초록하지 않았고 매우 많이 고쳐 썼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한 개작의 방식은 원문을 생략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제2수의 시에 대해 설명하면서 『장자(莊子)』의 글을 인용하여 이렇게 썼다.

> 남해제(南海帝)를 숙(儵)이라 하고, 북해제(北海帝)를 홀(忽)이라 하며, 중앙제(中央帝)를 혼돈(混沌)이라고 한다. 숙과 홀이 [혼돈을 만났는데, 혼돈이 그들을 매우 잘 대해주었다. 숙과 홀은 혼돈의 덕을 갚고자 모의하여] 말하길, "사람은 [모두] 일곱 개의 구멍이 있[어서 이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이 사람은 홀로 갖춘 것이 없으니, [시험 삼아] 한 번 그에게 구멍을 뚫어주자."라고 하였다.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서, 7일이 되자 혼돈은 죽었다.[47]

꺾쇠괄호 속에 있는 내용은 바로 생략된 내용으로, 이러한 생략이 전체적인 문장의 뜻에 주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만 생략이 너무 많이 된 곳도 있다. 예를 들어, 제10수에서 반병의 설을 인용하여 이렇게 썼다.

> 이것은 요순(堯舜), 우탕(禹湯), 문무(文武), 주공(周公)을 말한 것으로, (원문에는 이곳에 '천년 동안(千載)'이라는 두 글자가 있다) 서로 마음으로 전하여, 전후가 서로 비추어, 하늘의 이치에 순수하게 맞는 것이 (원문에는 '於'라고 되어 있다) 가을 달[의 밝음이, 터럭 하나 만큼의 가려짐도 없는 것]과 같고, 가을 물[의 맑음이 한 점의 앙금도 없는 것]과 같다.[48]

이 단락에서는 생략을 하면서 원문에서 겨우 두 개의 어휘만을 남겨놓고, 그것의 성질에 대한 설명은 완전히 삭제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저자가 간결함을 추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집해』의 범례에서는 그가 시를 해설하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두었다. "제가들의 설이 같은 곳에서는 그 가운데 가장 잘된 것을 채록하였고, 이설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 가운데 본래의 뜻에 가까운 것을 택하였으며, 또한 두 가지 설을 모두 채록한 곳이 있는데, 독자들이 상세히 판단해보기 바란다(諸家說同處, 採其差長者, 其異同處, 則謹擇其近於本旨者, 亦有兩說並存處, 讀者詳之)"고 하였고, 또한 "제가들의 문장 가운데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감히 번번이 생략하지 않았고, 각각 그 아래에 의심되는 내용을 간략히 표시했다(諸家說文字間有合商量處, 不敢輒刪節, 各其下略標其疑義)"고 하였다. 그가 나타낸 의사는 『집람』에서 말한 제가들의 설을 '절충'하면서도 또한 "의심되는 곳은 비워두었다"는 것과 유사하다. 비록 이종수의 『집해』가 채모의 주석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그가 완전히 채모의 설

47) "南海帝曰儵, 北海帝曰忽, 中央帝曰混沌. 儵與忽[遇混沌, 混沌待之甚善. 儵, 忽謀報混沌之德,] 曰, 人[皆]有七竅[以視聽食息], 此獨無有, [嘗]試鑿之. 日鑿一竅, 七日而混沌死."

48) "此謂堯舜禹湯文武周公, (原文此處'千載'兩字)相傳之心, 前後相照, 純然(原文作於')天理, 如秋月[之明, 無一毫之翳, 如]寒水[之淸, 無一點之滓也]."

에 동의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제1수와 제2수에 대한 해석이다. 임성주의 『집람』은 하기의 관점에 완전히 동의하였기 때문에 채모의 주를 채록하지 않았던 반면에 『집해』는 비록 채모의 설을 인용하긴 했지만 단지 자구에 대한 해석에만 제한하였고, 시의 의미에 대해 해설한 부분은 인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기와 그의 스승인 황간의 설은 상세히 수록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제1절은 음양을 말한 것이다(第一大節言陰陽)"라고 하여 간단하게 자신의 태도를 표명하였다. 이로써 그의 관점도 역시 임성주와 같이 하기의 설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이종수는 그가 채모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제3수에서 이종수는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 이 시는 성인이 조화의 묘함을 쥐고서 동정(動靜)의 경계에서 움직여야 주요한 작용에 잘못이 없음을 말한다. 채씨는 인심(人心)의 조화라고 여겼는데, 마땅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49]

『집해』는 제가의 학설을 집록하는 동시에 때때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는데, 『집람』의 편자가 개인적 의견을 문자에 대한 해석이 다른 부분에만 한정지었던 것과 다른 점은, 『집해』에서는 시의 주제에 대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자의 자서와 관련하여 이종수는 전체 시의 주제를 총괄하였다.

> 스무 편은 모두 눈앞의 일상적인 곳에 처하여 느낀 바에 대하여 흥이 일어난 것이니, 따라서 '감흥'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그 문사는 고원하되 우러러 하늘을 살피고 굽어 땅을 살피듯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는 이치에서 멀지 않으며, 가까이에서 취한 것들 사이에서 심원하게 궁구하여, 이로써 이러한 도의 근본을 밝히고, 심법(心法)의 정미함을 보이며, 이학(理學)의 정맥을 제시하고, 사설(邪說)을 설파하는 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독자는 마땅히 그것을 체득하여야 한다. 앞의 10편은 성인의 학문을 말하였고, 뒤의 10편은 현인의 학문을 말하였다.[50]

이 단락은 『감흥시』가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된 원인과 문학의 범주를 넘어선 사회적 효용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에는 또한 20수의 시 가운데, 앞의 10수와 뒤의

49) "此謂聖人秉持造化之妙, 動靜之際做也, 骨子而無違. 蔡氏以爲人心之造化, 恐當商量."

50) "二十篇皆就目前日用處, 即其所感以起興, 故以感興名篇. 其辭高遠而不離仰觀俯察, 遠求近取之間, 所以明此道之大原, 示心法之精微, 揭理學之正脈, 而使邪說者不得作, 讀者宜體認之. ○前十篇言聖人之學, 後十篇言賢人之學."

10수의 구별을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니, 이것 역시 앞선 주석가들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종수는 아마도 임성주의 『집람』을 보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똑같이 중국의 문헌을 인용하고 있는데, 양자 모두 원래의 문헌과는 같지 않으면서 두 책 사이의 글자는 완전히 같기 때문이다. 우선 제2수에 대한 해설에서 반병의 말을 인용한 부분을 예로 들어 본다.

<표 1> 『감흥시통』과 『집람』, 『집해』 비교

『감흥시통』	『집람』	『집해』
潘氏曰, 天地不同形, 陰陽不同氣, 寒暑不同時, 八卦不同畫, 而太極一理, 默有以貫乎其中. 反諸吾心, 昭然著見, 非見於仿佛象罔間也. 伏羲去世既遠, 太極之理不明久矣, 非濂溪翁作太極圖以示人, 後世何由知也?	潘氏曰, 天地不同形, 陰陽不同氣, 寒暑不同時, 八卦不同位, 而一理貫乎其中. 昭然著見, 非見於仿佛象罔間也. 伏羲既遠, 此理之不是有久矣. 非濂溪翁作太極圖以示人, 天下後世何由知之?	潘氏曰, 天地不同形, 陰陽不同氣, 寒暑不同時, 八卦不同位, 而一理貫乎其中. 昭然著見, 非見於仿佛象罔間也. 伏羲既遠, 此理之不是有久矣. 非濂溪翁作太極圖以示人, 天下後世何由知之?
반씨는 이렇게 말했다. 천지는 형체가 같지 않고, 음양은 기(氣)가 같지 않고, 추위와 더위는 때가 같지 않으며, 팔괘는 획이 같지 않은데, 태극은 하나의 이치로서 고요히 그것들 사이를 관통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보면 밝게 드러나 보이지만, 희미하거나 형체가 없는 것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복희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어, 태극의 이치가 밝지 않게 된 것도 오래되었는데, 염계옹이 태극도를 지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더라면, 후세 사람들이 어찌 알았겠는가?	반씨는 이렇게 말했다. 천지는 형체가 같지 않고, 음양은 기(氣)가 같지 않고, 추위와 더위는 때가 같지 않고, 팔괘는 지위가 같지 않으나, 하나의 이치가 그것들 사이를 관통한다. 밝게 드러나 보이지만, 희미하거나 형체가 없는 것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복희로부터 멀어져서 이러한 이치가 옳지 않게 된 것도 오래되었다. 염계옹이 태극도를 지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더라면, 천하의 후세 사람들이 어찌 알았겠는가?	반씨는 이렇게 말했다. 천지는 형체가 같지 않고, 음양은 기(氣)가 같지 않고, 추위와 더위는 때가 같지 않고, 팔괘는 지위가 같지 않으나, 하나의 이치가 그것들 사이를 관통한다. 밝게 드러나 보이지만, 희미하거나 형체가 없는 것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복희로부터 멀어져서 이러한 이치가 옳지 않게 된 것도 오래되었다. 염계옹이 태극도를 지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더라면, 천하의 후세 사람들이 어찌 알았겠는가?

두 저작 모두 원래의 출처인 『감흥시통』과는 적지 않은 글자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두 저작 사이에는 오히려 놀라울 정도의 일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람』이 편찬된 시대가 더 앞서기 때문에 『집해』가 『집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두 책의 끝에는 모두 제가총론 『감흥시』를 부록으로 실었는데, 두 책이 인용한 글이 역시 거의 완전히 같으며, 이는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책 사이의 차이도 매우 분명하다. 『집람』의 주석은 소략한 반면 『집

해』의 주석은 비교적 상세하다. 또한, 『집람』은 글자의 뜻을 밝히는 것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인용한 주석이 모두 시 가운데 나오는 문자에 대한 해석이고 간혹 시의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 반면, 『집람』은 글자에 대한 해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은 시의에 대한 해설과 주자의 핵심 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예를 들어, 제14수에서 "원형(元亨)이 모든 물건 생장시키는 것이라면, 이정(利貞)은 진실로 그 뿌리라네. 정성(精誠)이 아니면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오성(五性)은 실로 여기에 갖추어져 있다네(元亨播群品, 利貞固靈根. 非誠諒無有, 五性實斯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기의 관계와 '성(誠)'에 대한 관점을 포괄하는, 주자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적 관념을 끌어와서 언급한 것으로, 『집람』은 이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적은 반면, 『집해』는 『주자어류』에 나오는 관련 글들을 대량으로 인용하면서 사실상 이것을 빌려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있다. 이종수가 주자의 학설을 많이 인용한 것은 그가 주자의 저작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김도화가 발문에 쓴 내용에 따르면, 이종수는 "주자의 저서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어류』에서 글을 취하여 『주어근사록(朱語近思錄)』을 편찬한 바 있으며, 또한 문하생들의 제설을 따로 채록하고 풀이하여 『주어훈문인분류(朱語訓門人分類)』를 편찬하였다(尤用力於朱子書. 嘗節取語類, 編爲朱語近思錄, 又別錄訓門人諸說爲朱語訓門人分類.)"고 하였다.

조선에는 이 두 가지 집주본 이외에 송시열(宋時烈)의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가 있다. 이것 역시 『감흥시』에 대해 교석(校釋)을 하였는데, 그 성과는 부분적으로 임성주의 『집람』에 흡수되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감흥시』에 대한 화시가 많이 창작되었다. 예를 들어, 표연말(表沿沫, 1431-1498)의 『근차주자감흥시(謹次朱子感興詩)』,[51] 김육(金堉, 1580~1685)의 『경차회암선생감흥시운(敬次晦庵先生感興詩韻)』,[52] 박광일(朴光一, 1655~1723)의 『차주자감흥시운(次朱子感興詩韻)』,[53] 남유용(南有容, 1698~1773)의 『근차주자감흥(謹次朱子感興)』[54] 등이 있다. 중국의 문집 가운데 『감흥시』에 대한 평론은 서발문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론(專論)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한국의 문집에서는 전론 성질의 문장은 드물고 대부분 서신 가운데 나타난다. 또한, 중국의 전론은 일반적으로 『감흥시』에 대하여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평론은 종종 『감흥시』에 나오는 몇 구의 시에 대하여 평론을 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조선시대의

51) 表沿沫, 『藍溪先生文集』 권1(『韓國文集叢刊』 제15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6, 424면).
52) 金堉, 『潛谷先生文集』 권1(『韓國文集叢刊』 제86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6, 14면).
53) 朴光一, 『遜齋先生文集』 권1(『韓國文集叢刊』 제171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8, 14면).
54) 南有容, 『雷淵集』 권6(『韓國文集叢刊』 제217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8, 145면).

학자들이 가장 많이 논의한 것은 『감흥시』 제3수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은 오묘하여 측량할 수 없으니, 나오고 들어가는 데에 기운과 기미를 탄다네(人心妙不測, 出入乘氣機)"라는 구절임을 발견하였다. 이 시구가 심(心), 이, 기 사이의 복잡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조선 사인들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았다.

> 『감흥시』에서 말하길, "사람의 마음은 오묘하여 측량할 수 없으니, 나오고 들어가는 데에 기운과 기미를 탄다네"라고 하였는데, 지금 생각건대 마음의 기가 형기(形氣)에 간여되지 않는다면, 마음은 안이고 몸은 밖인데 어찌 간격이 없을 수 있겠는가? 마음이 나고 드는 것이 어떻게 기운과 기미를 탈 수 있는가? 대개 마음이라는 것은 발현되지 않으면 성(性)이 되고, 발현되면 정(情)이 된다. 성은 곧 이(理)이고, 정(情)은 곧 기(氣)이다. 이 기는 성과 기라고 할 때의 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기(理氣) 이하로 매우 많은 기자(氣字)가 있지만, 정이라는 한 글자에 포괄되지 않는가. 정이라는 글자가 명명된 의의는 성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혈기가 이(理)를 운행함을 말한다. 이른바 안팎으로 간격이 없다는 것과 소위 나오고 들어가는 데에 기운과 기미를 탄다는 것은 아마도 모두 이러한 이치 때문이다.[55]

여기에서는 『감흥시』를 화두로 삼아 주자학의 심(心), 성(性), 정(情)의 문제와 이기의 관계, 그리고 '이미 발하였느냐 발하지 않았느냐(已發未發)'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하고 있는 대상은 모두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중국의 주석들, 즉 호승의 주석이나 여백부의 주석은 비록 '이미 발하였느냐 발하지 않았느냐'의 문제, 심(心)의 문제, 기(氣)의 문제 등을 논의하기는 하였지만, 윗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잡한 개념들 간의 계통을 세우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일관적인 설명을 하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4. 결론

이상으로 간단하게 『감흥시』가 조선에서 유통된 과정과 그 영향을 개략적으로

---

55) 玄尙璧, 『冠峯先生遺稿』 권2, 「答李公擧別紙」(『韓國文集叢刊』 제191, 서울: 景仁文化社, 1997, 32면). "感興詩曰, 人心妙不測, 出入乘氣機. 今謂心之氣, 專不干於形氣, 則心身內外, 烏得無間隔, 心之出入, 烏得乘氣機哉? 蓋心之爲物, 未發則性也, 已發則情也. 性卽理也, 情卽氣也. 這氣其非合性與氣之氣, 而理氣以下, 許多氣字, 其不囿於情之一字乎? 情字命名之義, 從性從肉, 是血氣行理之名. 所謂內外無間隔, 所謂出入乘氣機者, 恐皆以此也."

서술하였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감흥시』는 조선시대에 더욱 광범위하게 보급되었고, 사인들이 애호하는 독서 대상이자 성리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토론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주자학이 조선에서 시종 지배적 지위를 견지하고 있었던 사실과 관련이 깊다.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 한문 문헌으로부터 출발하여 『감흥시』의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전파와 거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초보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로써 『감흥시』가 동아시아의 서적 전파 역사상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이 시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지니는 문학 형식을 초월하여, 사상사와 문화사의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는 주자가 역사, 사회, 철학, 경전에 대해 지녔던 생각을 운문의 형식으로 집중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주자학의 핵심적 이념을 충분히 체현하고 있다. 현재 주자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대다수가 주자와 관련이 있는 경전 해석 저작이나 어록과 문집을 통해 주자의 사상을 살펴보는 방식을 취한다. 필자는 주자의 시가에서도 역시 그의 사상을 추출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감흥시』는 매우 좋은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문학 및 문화 교류 역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감흥시』는 역시 매우 좋은 연구 대상이다. 중국에 현존하는 『감흥시』의 가장 이른 주석본은 채모의 『감흥시주』인데, 이 책은 중국 본토에서는 일실되었고 일본에 보존되어 있다가 후에 다시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원대 호병문의 『감흥시통』과 유리의 『선시보주』는 『감흥시』를 해석한 주요한 저작이다. 유리 역시 생전에 『감흥시통』을 참고할 수 없었던 것을 유감으로 여겼거니와, 『감흥시통』은 널리 전파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는데, 조선의 학자 임성주의 『주문공재거감흥시제가주해집람』과 이종수의 『주자감흥시제가집해』는 호병문과 유리의 두 저작을 절충하여 한편의 새로운 주석본에 공동으로 수록하였으니, 이로써 두 사람의 원대 주석가가 중국 밖에서 만나게 된 셈이다.

이 글에서는 『감흥시』가 근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전파되고 수용된 과정이 주로 주석본, 화시 창작, 평론의 세 가지의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당연히 여기에 『감흥시』가 동아시아 사회에서 간각되고, 필사되며, 돌에 새겨지고, 강론되었던 것 등의 상황도 포함해야겠지만, 가장 의미 있는 형식은 이상의 세 가지 형식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동아시아 사회의 『감흥시』에 대한 수용 양상이 서로 같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주석본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중국의 주석본이 가장 창작성이 두드러졌다. 즉, 문자에 대한 뜻풀이를 하면서도 시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해설도 실었는데, 특히 『감흥시』에 드러나는 의리를 해설하는 것에 중점을 두

었다. 반면, 조선의 주석본은 중국에서 나온 기존의 문헌을 인용하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간혹 편찬자 개인의 관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하여 인용한 문장으로부터 그들의 경향 역시 살펴볼 수 있었다.

의리(義理)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나라별로 주석가들의 시의 주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었다. 이견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은 『감흥시』 제1수와 제2수에 대한 해석이고, 주로 두 학파의 관점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모를 대표로 하는 주자학의 복건(福建) 채씨 일파로서, 그들은 이 두 수의 시가 주돈희의 『태극도설』, 즉 "무극이 곧 태극이다(無極而太極)"는 관념을 풀어 설명한 것이라고 여겼다. 또 다른 학파는 황간과 하기를 대표로 하는 주자학의 북산학파로, 그들은 이 두 수의 시가 반영하는 것은 음양 변화의 관념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이 두 학파의 관념은 동아시아 삼국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수용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감흥시』에 대한 집대성 형식의 저작인 『감흥시통』은 채모의 관점으로 기울었고, 일본 기문학파의 창시자인 산기암재의 『감흥시고주』 역시 채모의 설로 기울었던 반면, 조선의 두 집주본 『집람』과 『집해』는 하기의 관점을 옳다고 여겼다.[56] 이러한 차이는 한편으로 『감흥시』가 함축하고 있는 심오성과 개방성을 설명해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주자학 발전의 서로 다른 면모와 그 배후

56) 한국의 문집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 채모의 설에 동의하지 않는 글도 있고, 하기의 설에 동의하지 않는 글도 있다.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의 『갈암선생문집(葛庵先生文集)』 권12 「답신명중(答申明仲)」에서 "전에 북산 하씨의 설을 논하였는데, 『감흥시』의 제1수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역대전』에서 '한 번 음이고 한 번 양인 것을 도(道)라고 한다'고 한 것을 들었는데, 도는 바로 태극이다. 이 시에서 말한 '음양은 멈춤이 없고, 추위와 더위는 서로 오고 간다(陰陽無停機, 寒暑互來往)'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이것이 한 번 음이고 한 번 양인 도라는 것이 아닌가? 주돈희의 『태극도설』에서는 '무극은 곧 태극이다(無極而太極)'라고 하였는데, '이(而)' 자를 태극의 앞에 덧붙였다. 이는 이 이치가 지극해지면 처음에는 소리도 냄새도 그림자도 향기도 없게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니, 태극으로부터 멀어지면 무극의 상태가 있음을 말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자는 '동정이 때를 같이 하지 않으며, 음양은 지위를 같이 하지 않으나, 태극은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動靜不同時, 陰陽不同位, 而太極無不在焉)'고 하였고, 또한 '방향도 없고 형체도 없고 유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그것을 무극이라 한다(以其無方所無形體, 不屬有無, 故謂之無極)'고 하였다. 이것은 그 설을 말한 것임이 매우 분명하다. 하씨는 이 시가 다만 음양을 위주로 한 것으로 여러 설들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채씨는 이 시가 극이 없으면 태극이 되는 이치를 말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가리켜 태극이라고 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하물며 무극에 있어서는 어떠하겠는가? 이는 태극을 음양 동정의 밖에서 찾는 것이니, 태극의 위에 따로 소위 무극이라는 것이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이는 주돈희와 주자의 뜻을 크게 잘못 이해한 것이다(前書論及北山何氏說, 感興詩首篇有可疑處……蓋聞易大傳曰, 一陰一陽之謂道. 道卽太極也. 此詩所謂陰陽無停機, 寒暑互來往者, 是孰使之然哉? 此非一陰一陽之謂道乎? 周子太極圖說曰, 無極而太極. 加而字於太極之上者. 以爲此理至極而初無聲臭影響之可言也, 非謂離太極而有無極也. 故朱子曰, 動靜不同時, 陰陽不同位, 而太極無不在焉. 又曰, 以其無方所無形體, 不屬有無, 故謂之無極. 此其爲說, 大煞分明. 何氏以爲此篇只是以陰陽爲主, 諸說推之太過. 蔡氏至謂此篇言無極太極. 不知指何語爲太極, 況無極乎? 是索太極於陰陽動靜之外, 而謂太極之上別有所謂無極也. 大失濂溪, 考亭之旨)"라고 하였다. 李玄逸, 『葛庵先生文集』 권12, 「答申明仲」(『韓國文集叢刊』 제128책, 서울: 景仁文化社, 1996, 62면).

에 있는 심층적 함의를 드러낸다. 필자는 또 다른 논문으로 이에 대하여 다시 논술할 계획이며, 여기에서는 일단 논하지 않았다.

2009년 이래로 장백위(張伯偉)는 '방법으로서의 한자문화권(作爲方法的漢文化圈)'이라는 학술 개념, 즉 연구하는 문제를 한자문화권 전체에 놓고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해 왔다.[57] 이 논문은 이러한 개념을 실천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주자의 사상을 연구하든 주자의 문학을 연구하든, 『감흥시』 20수는 모든 경우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매우 큰 작품이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는 결코 20수의 시 본문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이 시와 관련이 있는 주석본, 화시, 평론들을 전면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동시에 중국 본토의 문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일본과 조선의 문헌 가운데 상관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동아시아 한자문화권과 동아시아의 주자학이라는 두 방면의 시야에서 이 시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 시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체현한 문화적 의의를 귀납해내야 한다.

주제어 : 주자학, 『齋居感興二十首』, 수용, 한자문화권, 주석

투고일(2011. 4. 20), **심사시작일**(2011. 5. 4), **심사완료일**(2011. 6. 14)

57) 張伯偉, 2009「作爲方法的漢文化圈」『中國文化』.

<Abstract>

Transmission and Reception: Zhuzi's Inspiration Poems (Gan Xing Shi) in Chosun Dynasty

Bian, Dongbo *

Inspiration Poems (Gan Xing Shi)are a group of unique and influential poems in Zhuzi's works which touch upon the ontology, orthodox ideas of Neo-Confucianism, and criticize the education system and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at that time as well, and express the exclusion of Buddhism and Taoism. So its contents are comprehensive and intensive. It has a great influence from Song to Qing Dynasty in China, and had spread to ancient Japan and Korea since early time. Chinese literati not only use Inspiration Poems as the object of calligraphy, but also inscribe them on stones. However, the main existence of Inspiration Poems in East Asian Community is in annotation, imitation and commentary. Inspiration Poems were more popular in Korea than in China and Japan in pre-modern period, which related to the domination of Zhuzi's thoughts in ancient Korea. In Chosun Dynasty, literati liked to handwrite Inspiration Poems as a gift to friends, use the words from the poems to name their study room, and discuss the implication of the poems in seminar. Two compositive annotated editions of Inspiration Poems came out in Chosun Dynasty. Although the two books integrated many Chinese commentaries, the editors of these books expressed their own ideas and comments between lines. As for the case of Inspiration Poems, we can see that literati in East Asian community share some same opinions, and also have different opinions in their reception of Inspiration Poems, which shows distinct aspects of studies on Zhuzi. Finally, it is noticeable that we should put East Asian literary texts of pre-modern era in the context of Sinographic cultural sphere then we can draw fruitful meaning from them.

Key Words : Zhuzi, Inspiration Poems(Gan Xing Shi) , studies on Zhuzi, annotated edition, imitated works, commentary, Sinographic cultural sphere

* Nanjing University